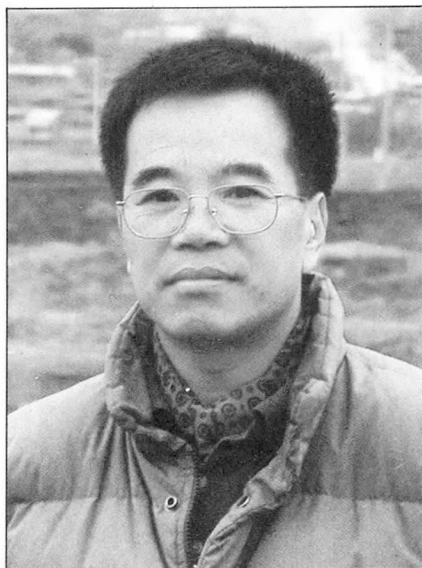


# 깊어지는 강은 세상에 이르고

「강 같은 세월」 펴낸 김용택 시인

“나무와 흙과 풀과 강으로만  
시를 빚어 ‘땅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얘기를 거기 담고 싶다”



김용택씨.

김용택 시인(48)은 전북 임실군 덕치면 장산리, 섬진강의 중류가 긴 뒤편(長山)을 따라 흐르고 있는 ‘진메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성장한 뒤에는 큰길 하나 건너 섬진강이 굽이돌고 있는 덕치국민학교에서 20년 이상 재직해 왔다. 그의 오십년은 고스란히 섬진강의 오십년인 셈이다. 그가 지금까지 펴낸 「섬진강」 「맑은 날」 「꽃산 가는 길」 등 일곱 권의 시집들 또한 모두 섬진강의 강심에서 퍼올려진 것들이다. 최근작집 「강 같은 세월」(장작과비평사)을 읽다 보면, 그의 외줄기 삶과 함께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강물 위로 무수한 물무늬 같은 시(詩)의 광휘가 어른거리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를 만나기 위해 덕치국민학교를 찾아간 아침은 흐리고 스산했다. 길 옆으로는 회청색 섬진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수면 위로 회청색 하늘과 흰 연기 오르는 산촌이 수목화처럼 담담하게 비쳐 있었다. 시인이 ‘내가 세상이 적막해서 울면/저 산 저 물도 괴로워서 운다’고 썼던 바로 그 적막한 산과 물이었다.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지요. 집을 지으실 때면 나무랑 흙이랑 풀만 있으면 거뎡했어요. 저도 아버지처럼 나무, 흙, 풀, 이런 것들로만 시를 짓고 싶습니다.”

합반해서 열 명이 조금 넘는 3·4학년 아이들이 와락와락 떠들고 있는 교실의 한쪽에서 그는 그 “자연으로만 빛은 시”에 “옛날에” 땅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오늘날” 농민의 정서라는 것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이제 자신이 써야할 아름다운 이야기는 “기억”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저는 원래 한번 나온 시집을 다시 읽지 않는데, 이번에 나온 시집은 난생 처음으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제 시들이 얼마만큼 자연과 하나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마지막이 얻은 두 아이들은 그의 아내와 함께 섬진강변의 자연을 떠나 전주에서 살고 있다. 진메 마을에 어린아이들이 라곤 그 둘뿐이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낸 것이다. 시인은 노모가 지키고 있는 진메의 시골집과 전주집을 오가며 지낸다. ‘아, 내 새끼들은 다 어디 갔는가, 내 눈발들은 다 목

었다’는 그의 한 시구처럼, 이제 그가 그토록 사랑해온 자연과 농민의 정서를 지켜갈 사람들은 급격한 속도로 사라져가고 있다.

그 때문일까, 지난 2년 동안 원인 모를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왔다는 그의 얼굴은 다소 그늘져 보인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 때문 아닙니까...” 하고 말끝을 흐리는 그는, 그러나 웃는 표정만큼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맑다. 평생 강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다 보면 저렇게 웃을 수도 있는 것일까 싶은 웃음이다. 그 웃음의 질박함과 선함처럼, ‘인간의 위엄과 문학의 위엄’이란 그렇게 가깝고 낮은 것, 따뜻한 것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닐까.

그는 「강 같은 세월」의 후기에 이렇게 썼다. ‘나는 그 긴 고통과 죽음과 대면한 싸움 속에서 인간의 위엄과 문학의 위엄을 같은 선상에 놓고 싶었다. ...외롭고 긴 침묵과 고요에서 짝트는 말, 그리고 무한한 사랑만이 인간을, 문학을 세운다.’ 강과 함께 보낸 세월 위에 ‘외롭고 긴’ 투병이 웅숭깊은 고통의 그늘을 드리운 탓에 이번의 시집이 유독 아름다운지도 모른다. 첫 시집 「섬진강」의 “애절한 눈물겨움”만을 읽다가 이 책을 펼친 사람은 깜짝 놀랄 만큼 이 시들은 깊고 때로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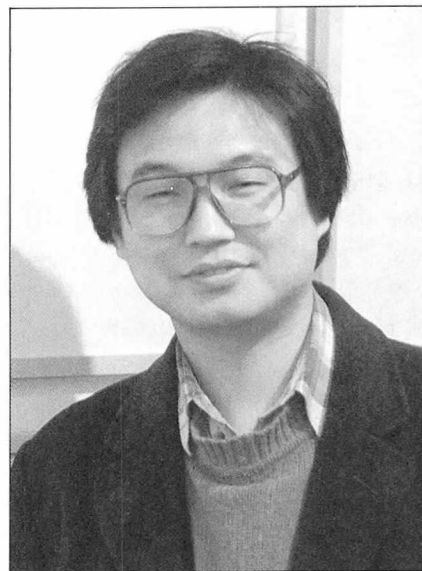
“계속 여기 게실 건가요,” 하는 우문에 시인은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하고 되묻는다. 그와 헤어진 뒤 혼자서 그의 고향 마을 진메로 걸어가는 길 옆으로 줄곧 강물이 웅얼거리며 뒤따라왔다. ‘세상에 이르고 싶은 강물은 더욱 깊어지(「강가에서」)’며, 세상에 이르고 싶음이란 결국 ‘무한한 사랑’에 다름 아니다. 회청색 섬진강은 이런 말을 들을 새 없이 웅얼거리며 더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었다.

—한 강 기자

# ‘나의 책’ 증명하는 품격높은 징표

국내 첫 「목판화 장서표전」 연 남궁 산씨

책을 가까이 하는 예술인,  
문인, 학자, 스님, 술친구 등  
78인의 장서표를 전시했다.



남궁 산씨.

장난스럽게도 어떤 이들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재떨이에 ‘이거 내 꺼’라고 적어놓는다. 애교스럽기조차 한 이 낙서에 다른 이들은 웃음을 흘리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책 어딘가에 “○○○의 장서” 혹은 “○○○의 책”이라고 볼펜의 깊은 자국을 남겨놓기도 한다.

이런 애교의 차원을 조금 넘어 호사가들은 장서표를 책에 ‘딱’하니 붙여 놓는데, 판화가 남궁 산씨(35)의 「목판화 장서표전」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인사동 현화랑에서 열려 책을 좋아하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장서표 전시회는 지난 93년 겨울과 94년 여름에 이미 열린 바 있지만 개인전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궁 산씨가 지금까지 공들여 만든 장서표는 모두 100여점. 그 중에서 이번 작품전에는 책을 가까이 하는 예술인, 문인, 학자, 스님, 가정주부, 술친구 등 78인의 장서표를 전시했다.

“장서표는 책의 표지나 뒷면에 붙이는 장서자의 표시로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판화는 회화와 달리 ‘나눔’을 전제로 하고 있는 장르이고, 인쇄와 판화가 같은 기법이라는 생각에 장서표를 제작하게 됐다.”

그가 처음 장서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91년 그림마당 ‘민’에서 연변 작가 이수산씨의 목판화 가운데 ‘EX-LIBRIS’라는 라틴어를 발견하고부터다. 이 말을 간단히 옮기자면 ‘내 장서 중의 한 책’이라는 뜻.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오던 ‘장서인’과 같은 역할을 장서표가 하고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주의 직업과 사상, 세계관, 취미 등을 두루 살펴 작품을 구상한다고 귀띔해준다. 예를 들어 도자연구가 윤용이씨에게는 달항아리를, 시집 「높고 외롭고 쓸쓸한」에서 연탄에 대해 많은 시를 토해놓은 안도현 시인에게는 연탄을, 4·3 사건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 소설가 현기영씨에게는 한라산의 봉화를 각각 중심 소재로 잡아 작품화했던 것.

남궁 산씨는 장서표가 여러모로 쓸 곳이 많다고 주장한다. 즉 서점의 서비스 차원에서

장서표를 제작해 고객들에게 나눠줘도 좋고, 각급 도서관의 책에 장서표를 붙이면 스탬프보다 책의 품위를 더 높여주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또 어떤 이는 남궁 산씨가 만들어준 장서표를 명함에 인쇄해 돌리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소설가 서해성씨(도서출판 산하 기획실장)다.

그렇다고 장서표를 꼭 유명 판화가에게 부탁해야 좋은 것은 아니다. 고무지우개에라도 자신이 직접 장서표를 제작해 사용하는 것이 최고라고 남궁 산씨는 말한다. 하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남궁 산씨 자신의 장서표는 아직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략 30여명의 판화가들이 장서표를 제작하고 있는데, 남궁 산씨는 전시기간 이후에도 일반인들의 장서표를 제작해 줄 계획이다. 가격은 40장 원화(액자 1점 포함)에 20만원 가량이다.

—이성수 기자

Good Design Good Partner

##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좋은 기획이 출판인의 몫이라면, 좋은 표지는 미술인의 몫입니다.

**양무리**  
출판·인쇄·광고디자인  
TEL267-0396, 272-8097